

한국의 한 식문화에 대한 축산 전공자와 타 전공자의 견해 비교

김석은*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e-mail:sekim21@naver.com

A comparison of views of livestock majors and other majors on one food culture in Korea

Seok-Eun Kim*

*Dept. of Animal Resources Science, Kongju University · Dept. of Pet Care, Hyejeon College

요약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문제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 고유의 식문화라는 측면과 어떻게 한 식구인 반려견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냐는 측면이다. 충남의 K대학교와 H대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현재 조사 분석 중이다). 개고기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견해를 축산전공자, 애견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로써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방법

1. 서론

개는 가장 먼저 가축화되어 인간과 함께 오랜 역사를 함께 지내온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신문화(補身文化)가 있어 개를 식용(食用)으로도 이용하여 왔고, 지금도 육견(肉犬)을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관련 요식업(料食業)을 하는 이도 있다. 최근 개의 식용금지에 대한 입법제안도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슈화해서 개의 식용금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깃들어 있으며 서민층의 극심한 체력 소모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다[1]. 개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오던 전통음식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 절대 반대 입장이다.

인류문화의 보편적 논리와 윤리에 비추어 진화할 필요성도 있기에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견지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구의 한국 개고기 식용비난을 경청할 필요성도 있다[2].

충남의 K 대학교와 H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한 식문화인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를 축산 전공자들과 애견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 결론 및 제언

국내 반려인구가 1,500만명으로 전국민의 1/4이 넘게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식용으로 먹어오던 개고기 식용문화는 억지로 없앨 필요가 없어 보인다. 때가 되면 식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좀 더 때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1] 정지윤·윤기봉, “한국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관한 종교인의 의식조사-대순진리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제32집, pp. 25-62, 2015년.
- [2] 박종구, “개고기 식용문화는 야만적인가, 아니면 한국 고유 음식문화인가에 대한 문화상대론적 논의”,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41권 제10호(통권 156호), pp. 217-234.